

Protecting Our Planet with new technology

# KC NEWSLETTER

Issue 68 • April 2015

KC NETWORK

임원 워크숍

우즈베크

태양광 TEST BED

설치

KW/C-30  
신청

KC솔라에너지

향유의 집 설비 기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태양광 발전설비 종합준공

모듈형 복합 분산전원 시스템 실증 단지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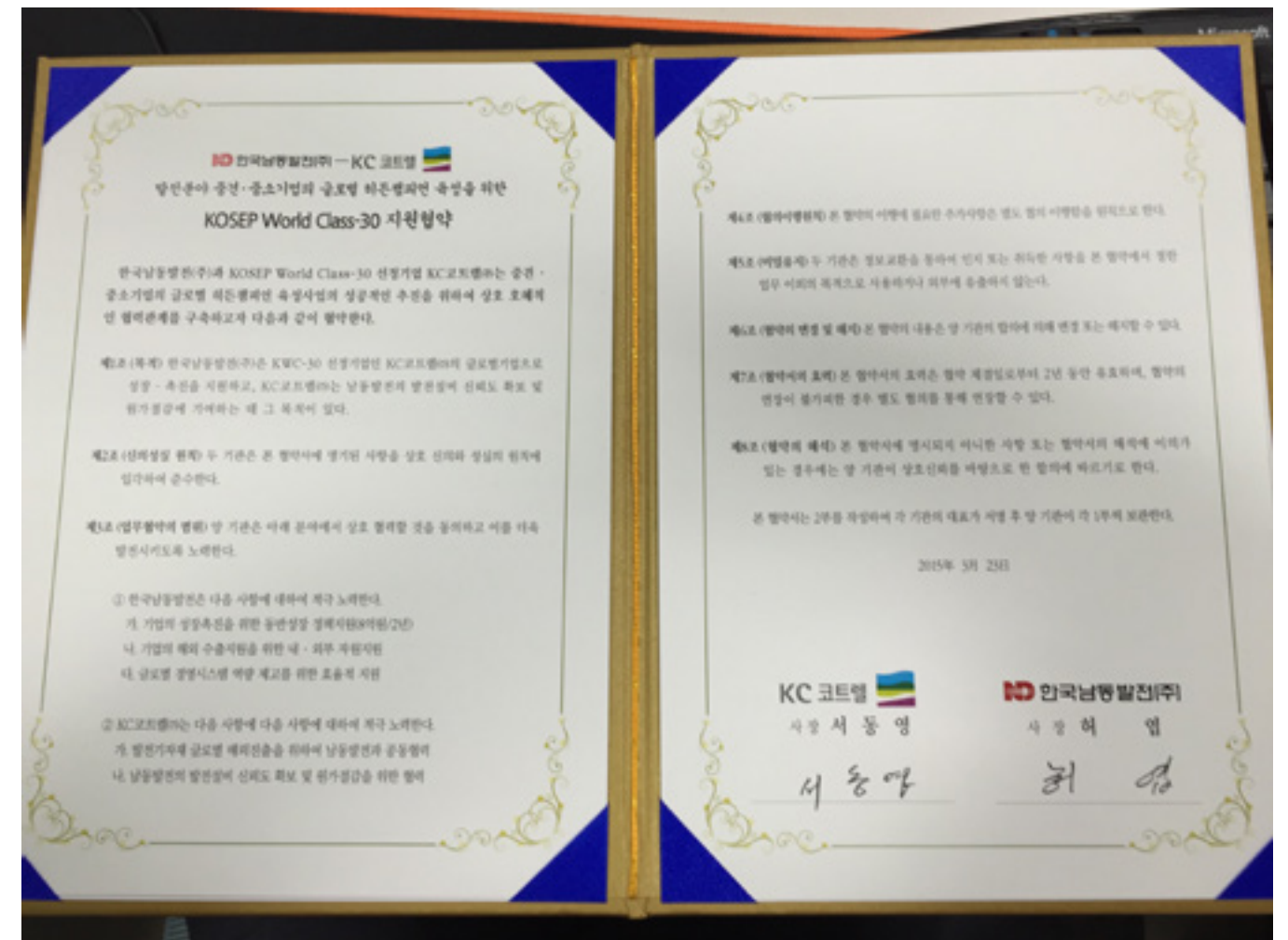
KC WORKS TOGETHER WITH DETERMINED, CREATIVE INDIVIDUALS



## KC코트렐 KWC-30 선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KOSEP World Class-30

KC코트렐은 한국남동발전에서 발전분야 중견, 중소기업의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KOSEP World Class-30(KWC-30)에 선정되어 한국남동발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지원협약을 맺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해 발전산업계 강소기업 30개를 발굴해 R&D와 해외 판로 개척, 경영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통해 매출규모 1,500억원 이상의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KC코트렐은 우선 2016년까지 8억원 범위 내에서 종합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기업니즈와 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KC코트렐은 발전기자재 글로벌 해외진출을 위하여 남동발전과 공동협력하고, 남동발전의 발전설비 신뢰도 확보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015 KC Network 임원 워크숍

위기를 기회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KC Network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입사원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소통하였다.



KC 네트워크 모든 관계사 임원들이 참가한 ‘KC Network 임원 워크숍’이 지난 4월 24일부터 이틀간 을왕리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미래 전략 방안과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KC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논의하였다. 이태영 대표이사는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동 20년, 동교동 20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상암동 시대에 KC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KC 네트워크 임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김정완 부사장 역시 2014년 실적을 공유하고,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놀텍코리아, 조드KC, 비올리아의 개편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워크숍의 취지를 이어 나갔다.

참석한 임원들은 위기관리에 성공 및 실패한 기업의 사례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사전에 배포한 과제를 바탕으로 KC 네트워크의 신사업 발굴 분임 토의를 진행하였다. 현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임원들은 KC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면서 즉시 실행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었다. 1시간반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열띤 토의들이 오고 갔고, 각 분임조의 대표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모든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효





근 사외이사는 임원들의 토의를 총평하는 자리에서 KC의 임원들이 보여준 열정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KC의 밝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워크숍 둘째 날은 놀텍 코리아의 Vision 및 중장기 계획을 시작으로 CEO리더십연구소장이자 성공하는 CEO의 습관, 강한 리더 등의 저자인 김성희씨를 초청하여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 고신뢰 조직을 만들기 위한 리더의 자세, 행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참석한 임원들은 강의 내

용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현업에 돌아가 미래를 창조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리더의 자세를 함께 고민하였다.

바쁜 현업에도 불구하고 KC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한 임원들이 있었기에 이날의 워크숍은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임직원이 소통, 협력하는 KC의 밝은 미래를 그리며 모든 행사를 끝 마쳤다.







## KC코트렐 우즈베크 태양광 TEST BED 설치

KC코트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태양광 산업협회는 지난 7일 우즈베키스탄 나망간(Namangan)주 팝(Pap)군의 130kW 규모의 태양광 Test Bed 구축 공사 준공식에 참여하였다. KC코트렐에서는 박호범 팀장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주우즈베크한국 대사관 정태운 상무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완근 회장, 우즈베키스탄 경제부 에너지 국장, 우즈베크전력공사 부회장 등 양국의 관계자들과 1,0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태양광 Test Bed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우즈베키스탄 경제부가 체결한 태양광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약 70만불 규모의 ODA 원조사업으로 추진됐다. 산업부의 ODA 자금과 한국 기업들의 태양광 기자재 기부를 통해 건설된 민관 합동 ODA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KC코트렐은 태양광 모니터링시

스템을 현물 출자하였고, 발전소 시공을 맡았다. 또한,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우즈베키스탄

실증단지 건설 및 운영, 인력양성 사업의 총괄을 맡았다. KC코트렐과 함께 Test Bed 기자재를 기부한 기업은 5개사로 한화큐셀코리아(50kW), JSPV(50kW), 에스에너지(20kW), 탐선(10kW)이 태양광모듈을, 카코뉴에너지는 인버터(100kW)를 현물 출자했고, 우즈베크 정부는 시공인력과 통관 및 기타 인허가를 지원하였다.

130kW 규모의 Test Bed는 올해 말까지 태양광 산업협회와 우즈베크전력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2015년 12월 31일 우즈베크 정부에 이양할 계획이다.

전 프로젝트의 개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4GW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사마르칸트 100MW 프로젝트의 입찰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태양광 Test Bed가 건설된 나망간 지역은 대규모 100MW 태양광 개발계획(2017년)이 예정된 부지로 나망간 현지의 필드데이터 확보 및 발전소 시공, 운영 경험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만큼 KC코트렐이 향후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KC코트렐은 금번 Test Bed 구축을 통해 중앙아시아 기후환경 및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분석 및 필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태양광 발







KC코트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인 “모듈형 복합 분산전원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연구과제의 국내 실증단지 준공에 참여하여 지난 3월 26일 잠도에서 준공식에 참여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진해구 부구청장, 에너지 관리공단, 과제 참여 기관 및 창원시내 태양관 관련 업체들이 참석하였다. 실증단지가 설치된 잠도는 진해만에 있는 누에모양의 도서로 현재 21가구 주민이 피조개 양식 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1년 창원시가 40kwp 태양광 전지 및 400kwh 납축전지를 설치하였으나, 발전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전기제품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부족한 전기를 디젤발전기로 공급함으로써 비싼 유류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에 창원시, 해군 등의 협조를 얻어 2014년 3월 잠도에 실증단지 설치관련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본 설비가 설치 됨에 따라 잠도 주민들은 충분한 전기 사용으로 향상된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KC코트렐 박기서 부사장의 주관기관으로, 에스에너지, 삼성SDI, 인텍FA, 한국전기연구원,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와 참여기관으로, 한국에너지 기술 평가원이 전담관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2013년 6월 모듈형 패키지 개발 및 PMS(Power Management System)/EMS(Energy Management System)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외 실증단지 설치 및 운전을 하였다. 적용 사이트의 규모와 자연환경, 부하 조건 등을 고려한 최적 조합이 가능하고 부하 증가에 대응한 확장성이 용이한 복합 발전시스템 개발을 골자로 하여 20~30 가구 규모의 50km급 시스템을 기본 모듈로 하고 용량 확장이 용이한 구조의 패키지화된 발전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이에 본 실증단지에는 50kwp 태양광모듈 (에스에너지), 50kw 인버터 2ea (인텍FA), 50kwh 리튬-이온 배터리(삼성SDI), 50kwp 디젤 발전기가 신규 설치 되었으며, 전체 공사 및 운전은 KC코트렐에서 진행 되었다. 또한 전기연구원에서 최대 효율로 발전소를 자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PMS(Power management system) 및 EMS (Energy management system)가 개발 설치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기존시스템과 병렬로 운전 되게 설계 되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태양광 발전설비 종합(11.5MW) 준공

지난 3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5MW 발전소 완공으로 총 11.5MW급 태양광발전소가 종합 준공 되었다. 이는 2013년 10월 18일 1차 3MW, 2014년 4월 30일 2차 3.5MW에 이어 준공된 것으로, 한국지엠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으로 연간 1만 4,000MWH의 전기가 발전되며, 이는 약 4,600여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발전량이다.

이번 준공을 통해 한국지엠의 국내 다른 공장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등 향후 KC솔라에너지와 GM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바이다.

## KC솔라 설비 기부

향유의 집 설비 기부  
KC솔라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한 첫 걸음



KC솔라에너지는 2014년 연말연시 행사로 3KW 태양광발전설비를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2월 24일 설치완료후 기부증서를 전달하였다. 기부처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향유의집」으로 지체장애, 지적장애등의 1,2급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이며, 현재 75인의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소통을 통한 개인의 자유로움을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다. 「향유의집」 김우탁 사무국장은 연 12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을 통하여 입소 장애인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기부는 KC솔라에너지가 준비하고 진행한 「제1호 발전설비」 기부로 앞으로 KC솔라에너지는 소외된 계층을 찾아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 KC NEWSLETTER

---

A GLOBAL LEADER IN GREEN BUSINESS

---